***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5. 5.1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구본규 LS전선 대표가 IPF 2025 개회식 기조 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 **문의** | **주호찬 차장 (010-8553-7904 ,** [**hjoo3@lscns.com**](mailto:hjoo3@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전선, 북미 최대 해양풍력 콘퍼런스**  **IPF 2025에서 ‘우수 공급망 업체상’ 수상**  **■ 한국 기업 최초 수상… 구본규 대표, 기조 대담 통해 장기 비전 제시**  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에서 열린 북미 최대 해양풍력 및 재생에너지 전문 콘퍼런스 IPF(International Partnering Forum) 2025에서 '우수 공급망 업체상(Supply Chain Advancement Award)’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의 수상이다.  이번 상은 미국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 구축과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며,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기술력과 미국 내 생산기반 강화,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콘퍼런스 개막일 저녁에 열린 공식 갈라(Gala) 행사에서 진행됐다.  같은 날 오전, 구본규 대표는 IPF 2025 개회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기조 대담자로 초대받아, 해상풍력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에너지 전환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해상풍력 산업은 단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LS전선은 이를 30년, 나아가 50년 이상 지속될 장기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진입과 투자의 적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 곡선상 이 산업은 분명한 성장 궤도를 따라갈 것이고, 그 확신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 |